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195>

JCCT 2024-9-23

최근 전쟁 사례분석에 기초한 인지전 수행 방안 연구

A Study on Cognitive Warfare Implementation Methods Based on Analysis of Recent War Cases

심준학*, 양순일**, 이제영***

Jun-Hak Sim*, Sun-Il Yang**, Je-Young Lee***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전쟁 사례분석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례를 분석하여 인지전 수행에 있어 ①목적에 따른 수행 방법 적용, ②목적과 수단에 적합한 조직·편성, ③민·군의 다양한 수단 활용이 중요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군사혁신 3요소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수행 방법 측면에서는 정당성과 합법성에 기반한 인지전 적용 시나리오 개발과 전쟁 수준별 역할 통합을, 조직·편성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법령에 기초한 민·관·군·경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수단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북 심리전 방송, SNS, 사이버작전 등 민·관·군·경의 다양한 수단을 청각, 시각, 메시지 전달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초연결·초지능화 되는 미래 전장에서 인지전 수행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한반도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인지영역, 전쟁수행방식, 인지전, 군사혁신, 정당성, 합법성, 심리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optimized cognitive warfare strategies for the Korean Peninsula by analyzing recent war case stud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rmenia-Azerbaijan war,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the Ukraine-Russia war, and the Israel-Hamas conflict,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aspects are crucial in conducting cognitive warfare: 1) applying methods according to objectives, 2) organizing and structuring appropriately to the objectives and means, and 3) utilizing various means from both civilian and military sectors. Based on these findings, cognitive warfare strategies optimized for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suggested in terms of the three elements of military innovation. From the aspect of methodology,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cognitive warfare scenarios based on legitimacy and legality, and to integrate roles according to the level of warfare. Regarding organization and structur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level control tower and the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involving civilians, government, military, and police based on legislation are proposed. In terms of means, it is suggested to utilize various tools from the civilian, government, military, and police sectors, such as North Korean defectors, psychological warfare broadcasts against North Korea, social media, and cyber operations, for auditory, visual, and message delivery. In future battlefields characterized by hyper-connectivity and hyper-intelligence, the execution of cognitive warfare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evelop optimized cognitive warfare strategies for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rehensive national efforts.

Key words : Cognitive domain, Methods of waging war, Cognitive warfare, Military innovation, Legitimacy, legality, Psychological warfare

*정회원, 육군대학 지상작전 교관 (제1저자)

**정회원, 육군대학 지상작전 교관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대학 지상작전 교관 (참여저자)

접수일: 2024년 6월 15일, 수정완료일: 2024년 7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5일

Received: June 15, 2024 / Revised: July 12, 2024

Accepted: Sept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sjs9261@naver.com

Dept. of Strategy, ROK Army College, Korea

I. 서론

과거 전쟁과 현재 전쟁이 다르고 이를 통해 전망하는 미래 전쟁의 모습 또한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전쟁의 변화를 예측하게 한다. 즉, 신 무기체계가 개발되고 군사 조직이 창설되며, 전략·전술이 구상되어 전쟁을 변화시킨다[1].

미래의 전쟁은 전쟁 그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적 목적이 변화하고, 군사기술보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미래 전쟁의 양상 또는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가 전쟁을 왜 연구해야 하고, 미래의 전쟁을 전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 변화하는 미래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진화하는 전쟁의 특징에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인간의 인지적 차원을 활용하여 상대의 ‘정치적 정당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 방향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인지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전쟁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을 식별하고, 여기에 최적화된 전쟁 수행 방안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이런 연구 배경에서 최근 발생한 인지전 사례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한반도 미래전 환경에서 인지전 수행 방안을 군사혁신 3요소-수행 방법, 조직·편성, 수단-측면에서 제시한다.

II. 인지전 사례분석 및 시사점

인지전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알고 있다는 뜻의 인지(Cognitive)와 전쟁 양상을 의미하는 전(Warfare)을 결합한 용어이다. 인지전의 정의와 수행 방법, 중요성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쟁사례를 보면 인지 영역을 새로운 전장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해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추세이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2020년)은 국제법상으로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아르메니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때문이다. 아르메니아는 자국민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이곳을 자국 영토에 합병하고자 했고, 아제르바이잔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이다[2].

아제르바이잔은 자폭드론이 아르메니아의 병력과 장비, 방어진지를 정밀타격하는 영상을 <그림 1>과 같이 실시간으로 SNS에 공개했다. 이 영상은 아르메니아 군에게는 공포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하는 데 충분했고, 아제르바이잔 국민에게는 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제사회가 이미 대세가 기울어서 아르메니아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원은 늦었다고 인식하게 하여 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다[3].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O8_ZLvhcFg

그림 1.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의 드론전투
Figure 1. Drone combat in the Armenia-Azerbaijan war

결론적으로 아제르바이잔군은 드론전과 SNS를 활용하여 상대국, 자국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인지전을 수행한 것이다. 그 결과 전장의 주도권이 아제르바이잔에 넘어가자, 아르메니아는 국제사회의 중재에 따라 2020년 11월 휴전에 합의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2021년)은 2021년 5월 7일, 알 아크사(AI-Aqsamosquel) 사원에서 예배를 마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강경 진압을 단행했고, 그 결과 약 2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Hamas)는 예루살렘을 급조로켓으로 공격했다. 이스라엘 지상군은

이를 명분 삼아 가자지구(Gaza strip)를 포위공격하고, 공군은 지구 내부를 폭격하면서 양측 간 분쟁은 사상자 증가와 함께 확대되었다[4].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내용을 SNS에 올리자, 이를 본 하마스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전투에 대비했다. 하지만 이는 하마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기만작전이었다. 또한 <그림 2>의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로켓을 요격하는 영상, 공습경보에도 국민이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는 영상, 전투기 조종사가 목표 주변에서 어린이를 발견하고 임무를 취소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며 전쟁의 정당성과 전력 우위를 과시하는 등 인지전을 수행한다[5].



출처: https://img.bemil.chosun.com/site/data/img_dir/2021/05/24/2021052400533_0.jpg

그림 2. 하마스 로켓을 무력화시키는 아이언돔
Figure 2. Iron Dome neutralizes Hamas rockets

결과적으로 하마스에는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 주요 지도자와 지하 핵심 거점이 노출/파괴되고, 급조로켓이 아이언돔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했다. 또한 이스라엘 국민에게는 압도적 전력 차이와 주요 전과를 홍보하여 국민 신뢰와 지지를 강화했다. 국제사회로부터는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간 피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이런 노력으로 양측은 분쟁 발발 2주 만인 5월 21일에 국제사회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2022년)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 위기는 고조된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생존을 위해 1차 무산된 NATO 가입을 재차 시도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로 자국을 위협하고 있다'와 같은 수많은 가짜뉴스를 배포함과 동시에 이를 자국의 안보

를 위협한다고 규정하고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6].

과거 러시아는 거짓 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돈바스 지역을 무단 점령했다. 그리고 최근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이미지 조작, 딥 페이크, 가짜뉴스 등을 통해 국제 여론과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2021년에 역정보대응센터(Center for Counter Disinformation) 창설하여 국가 차원의 인지전 수행 체계를 구축한다. [7]

이를 통해 대통령부터 전투부대까지 다양한 SNS를 운용하여 자국민, 국제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누구나 자발적으로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정보·심리전에 대응하여 인지전과 군사작전을 통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 일례로 러시아발 거짓 정보에 대한 반박 증거를 실시간 SNS에 게시하여 불신감을 확대하는 한편, 크렘린을 '무능한 거짓말쟁이' 이미지로 고착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8].



출처: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02/SSC_20230702122612_02.jpg

그림 3.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침몰하는 러시아 모스크바함
Figure 3. In April 2022, the Russian ship Moscow sinks due to a Ukrainian missile attack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에게는 비물리적 영역인 인지전과 물리적 영역인 군사작전을 통합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거짓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국민에게는 전쟁지도부부터 전투부대까지 SNS로 소통하면서 내부 결속과 지지를,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EU의 지지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는 국가 차원에서 통합된 인지전 수행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군사작전과 인지전의 효과적 통합을 꾀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2023년)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급습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에 따른 이슬람 사원 침입을 이유로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영토분쟁이다.

상대적으로 군사적 열세인 하마스는 비물리적 영역에서 정보·심리전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한다. 일례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민간인 학살과 같은 전쟁법 위반, 비윤리적 행동 등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를 SNS로 유포하고 있다. 이런 하마스의 정보·심리전으로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부정적 여론 형성을 인식한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먼저, 가지지구에 있는 병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SNS로 홍보하는 한편 이스라엘군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실시간 공개하여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 병원과피 등과 같은 하마스 가짜뉴스에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대변인 부대를 조직하여 하마스 가짜뉴스의 근원을 찾아 증거자료를 보도하는 것이다[9]. 일례로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공격하기 까다로운 학교나 병원 근처나 지하에 군사적 거점을 구축하여 피격 시 자연스럽게 부정적 여론 형성을 꾀하고 있다. 이 대변인 부대는 <그림 4>와 같이 지하 거점에 있는 하마스의 무기, 군사시설을 공개하여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또한 적극적인 국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논란이 되는 전투 현장의 실제 영상과 사진 등을 제시하여 하마스의 주장이 가짜임을 분명히 한다[10].

결과적으로 하마스에는 그들의 주장하는 이스라엘군의 전쟁법 위반, 비윤리적 행동과 같은 가짜뉴스를 조목조목 무력화시키고 있다. 내국민에게는 군에 대한 지지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는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런 인지전은 군사작전과 통합되어 그 효과는 극대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전 수행 목적에 따른 수행 방법을 적용했다. 즉, 상대국(군과 국민)에게는 공포감 및 사기 저하를 가짜뉴스 무력화 등을 목적으로 자국민(군 포함)에게는 군에 대한 지지 및 내부 결속 강화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정당성과 지지 확보를 그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합목적적이고 일사분란한



출처: <https://images.chosun.com/resizer/wyxOhCz7r-BZHYX0yHzQRmi8AJw=/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publishing.com/chosun/UTG6JUL5ENLY5GDZ7V2Q5L1454.jpg>

그림 4. 대변인 부대 지휘관이 알아홀리 아랍 병원 공격 관련 진상 브리핑

Figure 4. Spokesperson's unit commander briefs on the facts surrounding the attack on Al-Holi Arab Hospital

인지전 수행을 보장한 것이다.

둘째, 목적과 수단에 적합한 수행 방법을 구현할 조직과 편성이 뒷받침됐다. 즉, 대상별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요망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통령, 전투부대, 민간 조직, 대변인부대 등과 이들을 조정·통제하는 컨트롤 타워가 조직적으로 인지전을 전개했다. 일례로 물리·비물리적 영역에서의 통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고, 대통령~전투부대까지 SNS를 통해 소통했으며, 사전 개발된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컨트롤 타워가 적시·적절하게 조정·통제하였다.

셋째, 목적에 따른 민·군의 다양한 수단을 적용했다. 즉, 드론과 전투기의 정밀타격 영상을 SNS에 공개한다든지, 상용 트위터에 메시지 공개 및 주요 언론에 후속보도, 이스라엘의 대변인 부대의 증거 수집/공개와 대언론 활동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III. 한반도 인지전 수행 방안

최근 전쟁 사례를 통해 식별된 시사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과 우리 작전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군사혁신의 3요소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수행 방법)인지전 수행 목적에 부합한 적용 시

나리오 개발과 전쟁 수준별 역할을 통합하는 방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개전과 전시 상황의 정당성에 기반해야 한다. 국내법은 물론이고 국제법적으로 합당한 한반도에 상황에 최적화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한 인지전 적용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표 1>과 같은 인지전 적용 시나리오는 유사시 즉각적인 인지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민·관·군·경의 수행기관은 전쟁 수준별 역할을 구분하고, 이런 역할이 통합되고 평가되어 환류될 수 있는 작전수행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표 1. 한반도 인지전 적용 시나리오(예)

Table 1. Cognitive warfare application scenario on the Korean Peninsula (example)

• 적의 SNS와 사이버 해킹 등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
• 적의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찾아내 차단
•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으로 역정보 흘림
• 역정보 유포, 방송통신망 침투, 국경을 경유한 심리전
•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한 북한 주민의 변화 유도
• DMZ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대북 심리전 방송 전개

특히, 한반도에서의 인지전은 다른 군사작전과 통합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한반도는 미·일·중·러의 패권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편성)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대응체계 구축이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과 군대, 정부 간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방위적으로 정보·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전시 북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반도의 인지전은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민·관·군·경이 통합되도록 충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전략서에 인지전 관련 기본 지침을 포함하고, 합참 차원에서 여기에 인지전 관련 과업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전·후반기 연합연습 시 구축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군(軍)에 새로운 조직을 편성하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가용인력과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 심리전, 사이버전, 네트워크전, 정보

작전, 전자기스펙트럼작전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세분화해야 한다.

셋째, (수단)수행 방법과 조직에 최적화된 민·관·군·경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인지전은 사람의 인지 영역에 접근하여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자국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변화를 꾀하는 전쟁 수행 양상이다.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목소리(청각)는 38%, 보디랭귀지(시각)는 55%의 영향을 주는 반면, 말하는 내용(메시지)은 겨우 7%만 작용한다고 한다. [11] 결국, 사람의 인지 영역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각과 시각’에 집중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국내에 유입된 약 3만 4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자유화지역작전 간 활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양질의 메시지를 이들의 목소리와 바디랭귀지로 북한 주민 속으로 파고 든다면 그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또한, 2018년 4월 중단된 대북 심리전 방송을 통해 MDL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대상으로 인지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일례로, 대북 방송의 영향력은 최대 24km 이상 떨어진 북측 지역까지 전달되는데 실제 이 방송을 듣고 귀순한 사례도 있다. 즉,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인지전 수행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12]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인지전 전용 초연결 SNS를 구축하여 가짜뉴스 유포 및 차단, 역정보 유포, 북한의 가짜뉴스 실체를 밝힐 수 있게 한다. 즉, 민·관·군·경의 모든 수단을 통합해야 한다.

지금까지 최근 전쟁 사례분석을 통해 식별된 시사점을 기초하여 한반도 인지전 수행 방안에 관해 군사혁신 3요소 측면에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IV. 결 론

최근 전쟁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지 영역을 활용 전쟁 수행 방식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의 방안이 되고 있다. 한국군 또한 인지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사교리나 학술적으로 그 개념을 정립해 가능 중이다.

이런 배경에서 인지전 사례분석을 통해 한반도에 최

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상용 네트워크와 AI 기술을 결합하여 상대국의 국민과 군대, 정부의 신뢰 관계를 약화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사례분석을 통해 식별된 시사점은 인지전 수행 목적에 따른 수행 방법을 적용하고, 목적과 수단에 적합한 다양한 수행 방법을 구현할 조직·편성을 하며, 그리고 목적에 따른 다양한 민·군의 수단을 적용한다는 점을 식별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으로 먼저, 정당성 및 합법성에 기반한 인지전 수행 방법을 구상하는 방안으로 인지전 적용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함을 제안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법령에 기초한 민·관·군·경이 통합된 하이브리드 개념을 발전시키되, 국가 차원의 기본 지침에 기초한 모든 전쟁 수준에서 역할을 구체화하여 노력을 통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관·군의 수단은 사람의 인지 영역에 접근 함에 있어 청각과 시각, 그리고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하고 MDL 이북의 북한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과 SNS, 사이버작전 등을 통한 방안이다.

새로운 전장 영역으로 부각하는 인지 영역에서의 수행 방안은 최근 전쟁사례가 말해주듯 지금부터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인 것은 확실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시한 한반도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또한, 이런 방안은 정책적 군사적 절실성이 높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동의 인식과 노력의 통합이 뒷받침되었을 때 효과적인 인지전 수행을 보장할 것이다.

앞으로 핵심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래 전장 환경은 초연결·초지능화 될 것이다. 이런 작전환경에 가해지는 안보 위협은 인지전을 수행하는 전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국가 차원의 민·관·군·경이 통합된 다양한 인지전 방안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Geun-Wook Lee, 『Iraq War』 (Seoul, Hanul Academy, 2011), pp. 29-32.
- [2] Lim Yun-gap, “Armenia-Azerbaijan War” 『PKO Journal』 Volume 22, 2021. 06, pp.128-129.
- [3] Cho Sang-geun et al., “A case study of cognitive warfare in the 2021 Israeli-Palestinian conflict,”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ume 8, No. 6, 2022. pp.538-539.
- [4] Cho Sang-geun, “2021 Israel-Palestine Conflict” 『Chosun Ilbo』 (May 24, 2021) * https://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4/2021052400535.html
- [5] Chae In-taek, “A bomb was dropped after the ‘ominous phone call.’ Israel-Hamas New War” 『The JoongAng』 (2021. 05. 25.)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6077#home>
- [6] Jaemin Jeo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hat is the essential cause?” 『Current Affairs IN』 (2022. 03. 09.)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42>
- [7] Kim Ki-won et al., “Study on the Ukrainian army’s intelligent combat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military innovation”, Journal of Robotics Society, Vol. 18, No. 3, 2023. 07. 16. p.309.
- [8] Jeong-Hyeon Yoon, “Prolongation of the Russia-Ukraine War and Evolution of Information and Psychological Warfare,” ISSUE BRIEF No. 383, 2022. 09. 05. pp. 3-4.
- [9] Ryu Ji-young, “Lee and Hamas ‘hospital explosion’ information psychological warfare... U.S.” “Militant group misfires” 『Seoul Newspaper』 2023. 10. 19. *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asia-oceania/2023/10/19/20231019500226>
- [10] Yoo Yong-won, “‘We attacked the hospital?’ Fake news mobile strike force appears in the Israeli military”, 『Chosun Ilbo』 2023. 11. 30. *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1/30/36PPZ733ZBF77I25ELJXHVJ6WI/>
- [11] pmg Knowledge Engine Research Institute, 『Dictionary of Current Affairs』 * <https://www.pmg.co.kr/user/pmg/main.asp>
- [12] Kim Yu-rim, “After actually listening to the psychological warfare broadcast against North Korea...” 『Channel A NEWS』 (2015. 08. 22.) *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News.do?publishId=73190780-2